



월은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7>

훌륭한 제자들이 가르침 전승 주역

(724호 이어서) 이들 양교판(兩敎判) 공히 상위(上位)교상에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없는데 하위교판에는 반드시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본래 부처뿐이라는 말만 있으면 자고(自高)에 치우치고, 본래 중생뿐이라는 말만 있으면 자굴(自屈)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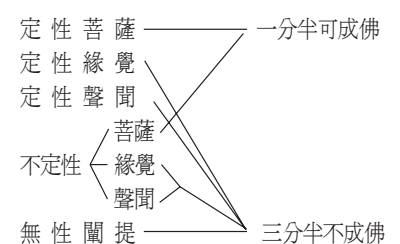
그러기에 상종(相宗)인 유식계(唯識系)에서는 이른바 삼분반불성불(三分半成佛), 즉 전체중생 오분(五分) 중에 삼분반(三分半)은 성불치 못하니, 성불하기를 바라거든 이 삼분반(三分半)에 머물러있지

무성천제 일본과 부정성중 연각과 성문은 정중을 뜻한다고 제15화에서 말한 바 이라 했다.

대기설(2)
대기(對機)란,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듣는 정중을 뜻한다고 제15화에서 말한 바 있거니와 넓은 의미에서는 출가한 이나 재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이 믿고, 남에게도 선양할 수 있으면 모두가 불법의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 믿고 따르는 무리 전체가 '대기' 교단의 상황 변화 따라 '호교 호법논리' 등장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생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니 정성(定性)과 부정성(不定性)과 무성(無性)이다. 정성이라 함은 성품이 어느 한 자리에 고정되었다는 뜻이요, 부정성은 그 반대로, 무성은 애당초에 성품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정성(定性)은 확정되어서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성문 연각 보살이 있다. 부정성(不定性)은 가변성이니, 여기에도 삼승(三乘)이 들어있다. 무성(無性)은 불성이 없는 근거니, 일원제(一闍提) 하나뿐이다. 정성보살과 부정성삼성중 보살은 정확히 말하면 삼분의 일이지만 반으로 쳐서 가성불(可成佛)에 넣었고.

그들까지도 모두 미래에 성불할 대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기란 말은 그저 자리가 잡힌 불자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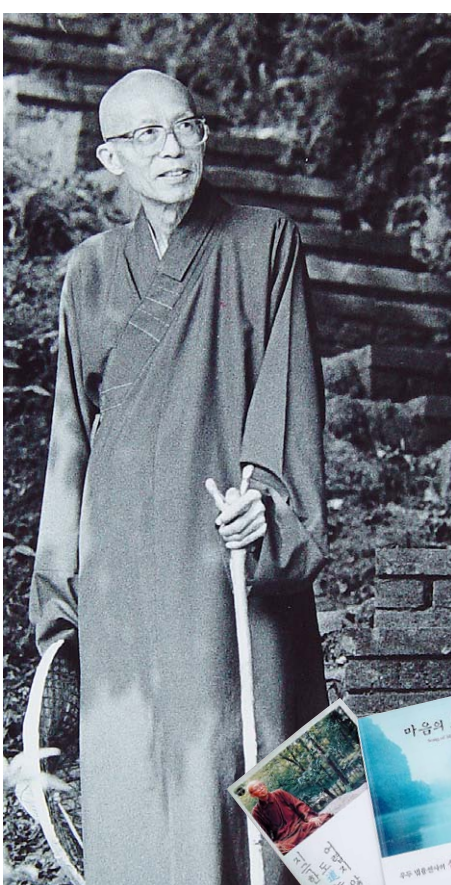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는 스스로가 난행(難行) 고행(苦行)을 겪으신 끝에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신 그 자체가 거룩하시지만 그 깨달으신 진리가 당대는 물론, 입멸 후 오늘날까지도 여법히 전해오게 한 유망명예의 제자님들이신 대기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늘 "미래세에 이 법을 끊이지 말고 오래오래 이어지게 하라"고 당부하시는 유족품(遺囑品), 또는 족유품(囑累品)이 있고, 혹은 "당래세(當來世)에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니는 이는 무량한 복을 받으리라"고 권유의 말씀을 내리시기도 하셨다.

이 미래사(未來事)를 당부하시는 일을 유족이라 하고, 이 유족을 받들어 행하는 이를 법사(法師)라 하고, 이 법사의 인권(引勸)에 의해 불문에 들어온 우리들을 유교제자(遺敎弟子)라 하니, 우리들은 말세유법(末世遺法)을 잘 지키라는 부촉을 받은 유교대기(遺敎對機)라 할 수 있다.

불신사 조실

마음에 새겨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성엄 선사의 법어 '마음의 노래' '지극한 도는...' 출간



성엄선사(법고산문예기금회사진 제공).

을 2월 23일 대만의 법고산에서 입적한 성엄(聖嚴) 선사는 1930년 중국 강소성 한 시골마을 출생했다. 13세에 스님이 된 그는 1949년 중국이 공산화 되는 혼란기에 국민당군에 입대해 대만으로 건너갔고 10여 년 간 통신장교로 복무하다가 1960년대 초에 제대하여 다시 불문으로 돌아왔다.

다시 승복을 입은 그는 6년간 대만의 남부 지역에서 폐관(閉關)수행을 하면서 참선과 교학을 닦았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문관 수행을 한 것이다. 그 후 일본 릿쇼(立正)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해 석사와 박사가 됐는데 이 기간 일본의 여러 종파를 두루 연구하고 수행을 체험했다. 중국과 대만과 다르게 전해 온 불교를 접한 것이다. 이 기간의 경험이 이후 미국에서의 참선지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그가 미국으로 간 것은 1976년이다. 뉴욕에 선 센터를 건립하고 설법 저술 불교단체 조직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선철(禪心)을 이끌었다. 선철이란 일주일(7일) 단위로 참선수행을 하면서 법문도 병행하는 수행 방법.

이 과정에서 성엄 선사는 매일 소참법문 형식의 설법을 했는데 그 법문들의 내용이 급속우조다. 미국에서 진행한 선철법회의 법문이 두 권의 책으로 번역됐다.

<마음의 노래>는 중국 선종의 제4조 도신 선사의 제자 우두법용(牛頭法融 594-657) 선사의 <심명(心銘)>을 성엄 선사가 강설한 것이다.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지 않음이나 지견이 무슨 소용 있으리오. 본래 한 법도 없거든 어찌 가르침과 수련을 논 하리오?'(心性不生 何須見 本無一法 誰論熏

鍊)로 시작되는 <심명>은 깨어 있음과 고요함을 동시에 닦아 가는 길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법용 선사의 할아버지 백인 3조 승찬(僧璨 ?~606) 선사의 <심심명>과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선사의 <참동계>와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 선사의 <보경삼매가>를 함께 실었다. <심심명>은 간화선 수행자들에게 익숙한 가르침이지만, <참동계>와 <보경삼매가>는 조종종의 수행자들이 주목한 선계(禪偈)다.

<마음의 노래>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옛 선사들의 가르침이 성엄 선사를 통해 오늘날의 가르침으로 새 힘을 얻고 있다. 성엄 선사는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체력과 현대인들의 일상을 예시하며 법문의 자상함을 일관되게 이끌고 있다. 또 화두 참선을 설명하는데 목조선이나 수식관 등 다양한 수행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점도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두 권의 책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이 만날 수 있는 성엄 스님의 법어는 선철에서의 법문을 즉석에서 영어로 통역한 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번역되기까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두 권의 책은 독자들에게 성엄 스님의 사자후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선리(禪理)를 떠나지 않고 성엄 스님의 각지(覺知)를 반듯하게 담았다. 이는 옮긴이의 역량과 직결된다. 옮긴이 대상 스님은 이미 허은 선사의 <참선요지>와 <방편개시> 그리고 감산 대사의 <감산자전>을 출간해 스테디셀러를 만들었던 베테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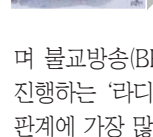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대성 스님 옮김|탐구사 펴냄|각권 1만2000원

'육조단경'의 문 안에서 삶의 활기 찾다



문인의 수행 문밖의 수행

월호 스님 강의 불광출판사 펴냄|1만3900원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이며 불교방송(BBS)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진행하는 '라디오 스타' 월호 스님. 요즘 불교 출판계에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고 있는 스님이 또 한편의 의미 있는 책을 펴냈다. <육조단경> 강의록인 <문인의 수행 문밖의 수행>이다.

문이란 어떤 문을 말하는가? 스님은 책의 머리말에서 돈오문(頓悟門)의 안과 밖을 말한다. "여기서의 문은 바로 돈오문을 말한다. 문 안의 수행은 돈오문 안으로 들어 온 이후의 수행 즉 단박 깨친 이후의 수행을 말하며, 문 밖의 수행은 아직 깨지기 이전의 수행을 말합니다."

<육조단경>의 편찬 경위에 대한 경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육조 혜능 선사 선사의 정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월호 스님은 <육조단경>을 인간에 대한 절대긍정 희망의 메시지란 측면에서 해설하고 있다. 선 수행자들을 위한 지침이 되기보다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이 무한한 가치를 깨우치고 활발한 삶을 영위하도록 힘을 돋워주는 생기 발랄한 법문으로 <육조단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옛 조사의 가르침을 오늘의 생활인들이 받아들이는 유연한 통로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는 남북이 없다"고 했고 "부처는 자기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닌 그대의 마음"이라고 일갈했던 혜능 선사.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경제 위기에 움츠러들기 쉬운 오늘날의 생활인들에게 커다란 힘을 준다는 것이 월호 스님 강의 포인트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부처를 따라	현각	김영사
3	아름다운 미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세어본 스님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5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해국	사유수
6	광명전언기도법	일타,김원준	효림
7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라	성진	개미
8	문인의 수행 문밖의 수행	월호	불광출판사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라	성진	개미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살이란 억만간의 향상을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지와 전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출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패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습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